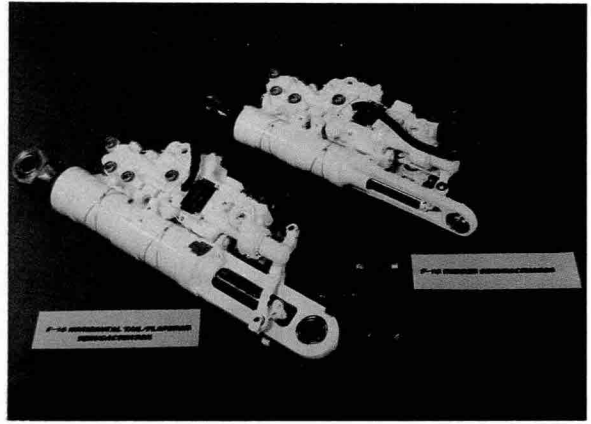


# 韓國綜合機械, 항공기 부품산업 본격 진출

— 美 NWL社와 기술제휴로 비행제어 서보액츄에이터(ISA) 생산



**한국종합기계**가 비행제어 전문업체인 미국의 NWL社와 기술제휴로 항공기 부품 산업에 진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여 항공기의 비행제어 서보액츄에이터(Integrated Servo-Actuator : ISA, 사진 오른쪽) 생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기계는 지난 '91년 11월 11일 朴用植 사장과 NWL社의 Kulbago 사장 간에 ISA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제휴 계약을 맺었으며(사진 왼쪽), '93년부터 '98년까지 총1백대의 ISA를 생산할 계획으로 자재, 치공구, 시험장비 등의 구매를 위한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행제어 서보액츄에이터(ISA)는 항공기의 상·하강 및 방향, 비행자세, 안정성 등을 「Fly

—By—Wire」 기술에 의해 제어하는 최첨단의 초정밀 유압부품으로, 국산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ISA 국산화 사업의 규모는 약 3백 50 억원으로, 단계적인 국산화를 거쳐 '96년부터는 가공국산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종합기계는 항공부품사업을 위해 약 2백 억원 규모의 장비 및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부설연구소에서는 헬기 구동시스템을 비롯한 항공부품의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종합기계는 정밀 기계부품인 베어링을 주생산품으로 유공압기계, 공작기계, FA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연간 매출액 2천억원 규모의 종합기계 회사로서, '89년 항공부품 전담부서를 구성 항공사업의 기반을 다져왔다.

## 三善工業, 항공기·선박用 특수 알루미늄 생산

**삼선공업**이 미국 최대의 알루미늄 메이커인 알코아(Aluminum Co. of America)社와 합작으로, 항공기 동체용 알루미늄 소재인 슈퍼 두랄루민을 비롯해 선박기자재, 사무기기(팩시밀리, 복사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특수 알루미늄 합금의 생산에 나서게 된다.

합작규모는 약 1백35억원(1천8백만불)으로, 삼선공업의 창원공장을 활용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알코아社は 알루미늄 압출기계를 비롯 품질보증장비, 기술자 등 일체의 기술지원을 하기로 지난해 11월 26일 양측이 합의했다. 금년 하반기부터 슈퍼 두랄루민등 특수 알루미늄 합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 金星精密, 美 GEC社와 HUD 계약 체결

— 한국전투기사업  
항공전자분야참여 —  
**금성정밀** 은 지난  
11월 15일  
美 Teledyne System社와 화력제어  
컴퓨터(GAC)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11월 29일 美 GEC  
Avionics社와 전방시현장치(HUD)  
생산을 위한 기술 도입계약을 체결  
하여, 한국 전투기 사업(KFP)의 항공  
전자장비 분야 생산 전문업체로  
참여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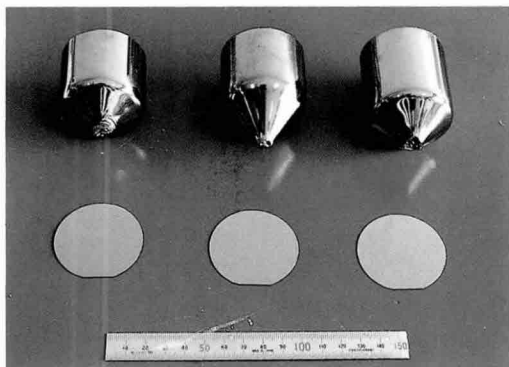
단계적으로 소재 생산이 정상화 되면, 별도의 공장(法人)도 설립할 계획이다.

삼선공업은 이번 합작에서 알코아社로부터 선진 첨단기술을 공급받는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는데, 이는 항공기 소재 부문에서 최초의 기술이전으로서, 삼선공업이 지난해 11월 25일 한국화이바, 대한항공과의 3년여 공동연구 끝에 시험비행에 성공한 「창공 91」

을 비롯한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코아社와의 합작에 따라 삼선공업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의 수출에서도 독점공급권을 갖는 셈이 되며, 그동안 자동차 알루미늄휠, 알루미늄샤시 등의 내수 판매 중심에서 수출의 비중이 커져, 93년에는 연간 3백억원 규모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 金星電線, 光素子用 갈륨비소 반도체 웨이퍼 개발



**금성전선** 이 순수 자체기술로서 광소자용 갈륨비소(GaAs)반도체 웨이퍼(사진)를 개발하여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GaAs반도체는 군사용 전자장비나 위성통신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실리콘반도체보다 6배정도의 초고속 정보처리 능력을 갖고 있어, 차세대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최근 정보화 진전에 따라 민수용 이동통신기기등에도 사용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현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금성전선이 GaAs반도체 웨이퍼를 개발함에 따라 약 7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금성전선이 개발한 이 웨이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MVGF(Modified Vertical Gradient Freeze) 공법을 이용한 개발로서 주목받고 있다.